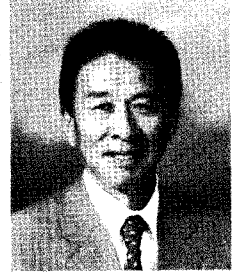


광주 전남서부 지부 초청 우수공원 참관기



김자영 | 회장
(사)한국조경수협회

지난 8월 27일 지회장님들을 중심으로한 우리 일행은 구자태 지역 지회장님을 비롯한 지회 여러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광주시 광천동 소재한 식당에 안내되어 모임을 가지면서 성대한 식사 대접을 받았다.

역시 음식의 고장답게 정성을 가득 담은 감명을 주는 맛있는 음식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수년전 신축한 광주시청에 안내되었다. 입구에는 이미 노원기 공원팀장을 비롯한 광주시청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고 이어서 넓고도 잘 꾸미어진 시청광장의 설명부터 듣는 순서가 되었다.

일단 이 광장은 오픈스페이스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담장만을 헐어낸 따라서 웬지 일반인들이 들어서기에 꺼려운 여타의 관공서 앞마당이 아니라 시청에 아무 불일이 없는 그저 지나치는 아무든 간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다는 것이 특징으로 느껴졌다.

이곳은 몇년전 시청 신청사 개청과 함께 준공되었으나 그후 수년간 이곳 녹지담당관계관들이 이용자들의 행태와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등을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개선할 점들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2천6백여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여 가면서 보완 개선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 사업 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청사 광장)
- 사업규모 : 18,868㎡(숲 조성)
- 집행액 : 2,645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16 ~ 2009. 06. 15
- 시행자 : 남해종합개발(주) 김형석

언론이나 녹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체등의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였으며 완공후에는 오히려 그분들의 찬사를 더 많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나 처음 점토블럭포장재의 사용으로 인한 하절기 복사열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부분을 녹음의 숲으로 개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데 대하여 어찌보면 적은 부분이지만 이용자들의 편에서 이를 생각하고 검토하신 관계공무원의 깊은 사려에 존경마음을 표하고 싶어진다.

또한 이번 이 공사의 조정부분은 우리협회 부회장이신 삼우조경의 이한승 사장께서 진두지휘하여 꾸며진 작품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뒀지모를 뿌듯함은 나만의 감정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했다.

이어서 안내된 곳은 청사 바로 맞은편 길 건너에 조성된 미관 광장 생태숲이라는 2만 4천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장소였다.

그 이름이 난해하다함은 도심에 과연 그 이름과 명실상부한 시설이 이 광대한 면적에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노원기 계장님의 전과정에 거침 설명을 들은 후 내 생각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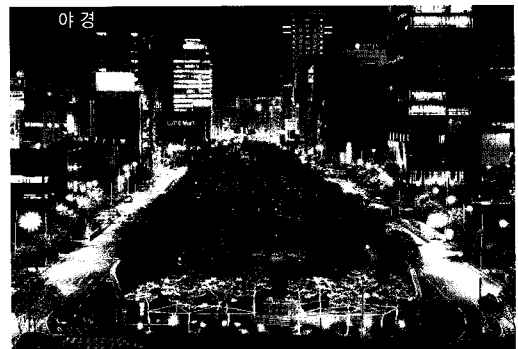
물과 숲이 잘 어울어지며 특히 야간에는 빛까지 어울어져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순례객들로 하여금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특히나 이곳 공원에 시설한 계류 폭포등에 사용되는 인근 개인소유 건물지하에서 솟는 지하수를 어차피 펌핑하여 하수처리해야 할 것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친환경 에코 등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있는 이슈의 대표적인 실용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사업 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시청앞 미관광장
- 사업규모 : 24,178㎡
- 집행액 : 89억원(녹색자금 19억원, 시비 70억원)
- 사업기간 : 2008. 02. 21 ~ 2009. 08. 14
- 시행자 : 성심종합개발(주) 장경수,
서경전력(주) 문광호





“이곳은 주위가 업무시설, 유흥시설, 판매시설 등이 집중된 도심의 중심부분인데 주간에는 인근의 각 시설의 근무자들이 점심 후에 커피점 등” 실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패턴에서 공원을 이용하여 휴식과 간단한 운동을 하고 일몰 후에는 물과 숲과 빛을 이용한 역동적인 환경에 “매료되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모든 연령계층을 망리하여 나름대로 마음껏 이용하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명소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한다.”

이 현장도 우리 회원사인 성삼종합개발의 장경수 사장이 역작임을 알게 되었다.

“89억원이라는 넉넉치 않은 예산이었으나, 수지타산에 구애받지 않고 고향에 남기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시공하셨다는 장경수 사장님의 말씀”에 감명받았으며 특히나 아직 내한성이 담보되어 있지 아니한 수종들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수종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고 하신다.

물론 이로 인한 손해를 전적으로 각오하신다는 개척자적 정신에 또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된다.

우리 일정을 마치면서 깊은 감동과 각오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으며 애쓰신 시청관계관들과 구자태 지회장님을 비롯한 지회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관 광장 생태숲 진입부에서



시청사 광장 앞에서



유리벽천 앞에서



벽천과 계류를 지나서



축 당선



본 협회 김충일 부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으로
당선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협회 이상걸 울산지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 협회장으로
당선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